

677조 '예산전쟁'...여야 '강대강' 이어갈 듯

'尹-명태군 녹취' 여파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가다 與 "지역화폐 차단" 野 "민생토론회·마음건강 삭감" 안도걸·문금주 "지역경제·민생지키기 최선 다 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 예산 국회에서도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강대강' 대치 상황을 고스란히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예산 국회는 4일 예산안 시정연

설부터 얼어붙은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 대독' 연설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과 명태군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예결특위 심사는 오는 7-8일 종합 정

책질의, 11-14일 부별 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18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소위에서 합의되면 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 일정 등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힘겨투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도할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차단하는 한편,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방어

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의힘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 관련 사업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정책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를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했다. 7천900억원으로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천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경우 김 여사가 관심

을 기울인 '김건희표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하려는 태세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갈질'을 예고했다. 광주·전남 예결위원은 재선의 주철현 의원(여수갑)과 초선의 안도걸(광주 동남을)·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권항열(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안 의원은 유일하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정부 예산안을 사

실상 최종적으로 증액·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문금주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예산은 내수·투자·성장 회복의 마중물이자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디딤돌이다. 더 꼼꼼하게 분석하고 더 치열하게 대응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기자

“임기단축 개헌부터” vs “탄핵안 당장 제출”...야권 속도차

혁신·진보당 “尹 탄핵 추진” 민주 지도부 '직접 거론' 신중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군 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이후로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놓고 야권에서 '속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군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170석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장외 집회,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을 띄우는 데 집중하면서도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는 아직 유보적이다. 민주당은 일단 '김 여사 특검법' 관철에 주력하는 동시에 의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카드와 대통령 하야 촉구로 용산을 압박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엔 탄핵을 앞장서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



김건희 특검 촉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판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전날 민주당이 주최한 장외 집회에서 최고위원들의 탄핵 촉구 발언이 대거 나온 만큼 조만간 지도부 기류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집회에선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 (김민석 최고위원),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 (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을 내려야 한다" (김병주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을 끌어낸 2016년 촛불집회를 상기시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여론전에 불을 당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3일 "최고위원들의 탄핵 발언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지만 지도부 방침이 전혀 아니다"며 "대통령 탄핵은 민심과 여당이 하는 것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군소 야당은 노골적으로 탄핵 돌입을 주창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총선 때부터 윤 대통령 탄핵

의 의미로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세워왔다. 진보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탄핵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수 정당의 경우 선명성과 존재감을 부각할 기회인 데다,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제1야당이 민주당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덜한 만큼 탄핵 추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에 앞장서면 집권 욕심 때문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민심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주철현 “정부, 쌀값 폭락 비상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갑·사진)은 지난 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의 비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2개월 동안 21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했던 수확기 쌀값 20만원 보장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정부의 농산 대책과 짙은 핏줄을 풀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윤석열 정권은 이를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비상 대책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 최고위원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도 이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과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수기자

황운하 “혁신당, ‘탄핵 열차’ 출발시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뉘 정리 중이며 이날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조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못된 과거사 인식, 아울러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범종 부정부,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반 사항"이라며 "탄핵 사유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형 속도도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 불법, 김건희 여사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묵인·방조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명태군 녹취록'의 경우 평상시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